

대졸자의 대학교육 및 취업 준비 경험이 전공일치 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 정 미(충북대학교 조교수)
길 혜 지(충북대학교 조교수)**

요 약

이 연구는 대학 재학 중 교육과 취업 준비 경험이 전공일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대졸자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2016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6GOMS)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과 대학수준 요인을 설정한 후 일반화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HGLM)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모형을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개인배경 요인 중에서는 자연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 졸업생은 인문사회계열 졸업생보다 전공일치 취업을 할 승산(odds)이 각각 1.981배와 1.736배 더 높았다. 대학 진학 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수능점수나 지인의 추천, 대학의 명성 등 이유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보다 전공일치 취업을 할 승산이 1.284배 더 높았고, 졸업평점이 높을수록 전공일치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째, 재학 중 취업준비 관련 요인 중에서는 취업목표가 구체적일수록 전공일치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경험한 학생이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보다 전공일치 취업을 할 승산이 1.194배 더 높았다. 반면, 학생 개인의 취업준비 활동 경험이 다양할수록 전공일치 취업을 할 가능성이 낮아졌고, 재학 중에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를 경험한 학생은 일 자체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보다 전공일치 취업을 할 승산이 0.840배 더 낮았다. 한편, 학교수준 변수들은 모두 학생 개인의 전공일치 취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대학교육, 취업준비 경험, 전공일치 취업, 일반화위계선형모형, GOMS

* 이 논문은 2019 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eduhj@chungbuk.ac.kr)
■ 접수일(2019.10.30), 심사일(2019.11.16), 게재확정일(2019.12.20)

I. 서 론

청년 대졸자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은 개인적 및 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실패는 매우 큰 심리적 좌절과 오점 효과(scarring effects)를 주게 되고(홍서연, 안주엽, 2002), 처음 획득한 노동시장 지위는 이후의 지위 획득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년층이 대학을 졸업한 후 노동시장으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대졸자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은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성과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실패는 사회적 총생산의 손실로 이어지며, 청년실업의 증가는 일정 연령계층의 노동력 수급 불균형을 가져오고 노동력의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동태적 적응력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대웅, 손주희, 이소담, 권기현, 2015).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바라볼 때 취업의 양적인 측면으로는 취업 여부가, 그리고 취업의 질적인 측면으로는 정규직 취업, 임금 수준, 전공일치 취업 및 직무만족도 등이 언급되어 왔다(황여정, 백병주, 2008; 정지선, 이수정, 신정철, 2010; 이만기, 2011). 이 중 전공일치 취업은 개인의 대학전공과 특정 직업의 일과 연관성이 높을 것을 뜻한다(구성우, 김병주, 2015). 일과 전공의 일치도는 업무의 수월성, 문제해결능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홍월, 황재원, 이자명, 2018).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상당수의 청년들이 전공분야와 불일치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료들이 보고되고 있다. 일례로,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종학교 전공 분야와 일자리의 직무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매우 불일치, 약간 불일치)라고 응답한 비율은 50.8%로 나타나, 사회로 진출한 청년 2명 중 1명이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길혜지, 김영식, 2018). 청년패널데이터(2009년~2014년)를 분석한 연구(문영만, 홍장표, 2017)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청년취업자의 이직사유 중 직무불일치는 39.2% 정도였다. 그리고 통계청(2018)에 따르면, 청년들의 첫 일자리 퇴직 이유는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약 51%), 다음으로는 불투명한 전망과 전공·지식·적성과 직무와의 불일치(약 1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전공-직무 불일치 취업은 고용주와 재직자, 나아가 우리사회 모두에게 상당한 개인적·사회적 비용 및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고용주 차원에서는 직무에 부합하지 않는 채용으로 인한 채용-관리 비용의 증가, 재교육 비용의 증가, 직무 부적합 근로자로 인해 유발되는 생산성의 저하, 전공-직무불일치에 대한 불만으로 이직 혹은 퇴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등이 문제가 된다. 재직자 차원에서는 자신의 전공(기술)에 부합하지

않은 직무를 담당하게 되어 생애 진로개발 측면에서 불리하고,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과 스트레스, 추가적인 교육훈련 또는 이직·재훈련 관련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문제를 겪게 된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전공-직무불일치는 재직자들의 낮은 직무만족도에 따른 이직을 초래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길혜지, 김영식, 2018).

이상의 문제 및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졸자가 노동시장으로 처음 진입 시 전공일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 전공일치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크게 개인배경 요인(임찬영, 2008; 이만기, 2011; 구성우, 김병주, 2015), 직무특성 요인(임찬영, 2008), 대학의 교육과정 및 경험 요인(정지선 외, 2010; 김안국, 신동준, 2014; 구성우, 김병주, 2015; 이미선, 김한나, 2019), 대학특성 변인(유현숙, 조영하, 2005; 구성우, 김병주, 2015) 등이 탐색되어 왔다. 이 중에서 대학 재학 중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험은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진로 목표 설정, 직업 수행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홍월 외, 2018). 그런데 개인 특성이나 직무 관련 특성에 비해 대학 재학 기간 동안의 교과·비교과 관련 경험이 졸업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대학교육의 책무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대학교육 경험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혜숙, 길혜지, 2017; 이병식, 최정운, 200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대학 재학 중 교육 및 취업 준비 경험이 노동시장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인 전공일치 취업을 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개인의 배경특성이나 현업에서의 직무 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성과를 분석하여 왔다. 이는 대학 졸업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이를 개인의 노력이나 역량의 부재로 인식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길혜지, 최윤미, 2014). 대학 재학 중 경험이 개인의 진로 발달이나 직업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대학교육의 책무성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필요성에 터하여, 이 연구는 대졸자의 대학교육 경험과 취업 준비 경험이 졸업 후 전공일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과 대학 수준에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탐색 결과에 근거하여 대졸자들이 전공일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이 어떻게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생들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전공일치 취업의 개념 및 측정 방법

노동시장에서 전공 분야와 무관한 분야에 취업하는 전공 불일치의 문제는 2000년대에 들어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공과 직무일치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직무가 전공교육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임찬영, 2008; 이만기, 2011; 길혜지, 최윤미, 2014). 전공과 직무의 일치도는 업무의 수월성, 문제해결능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개인의 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으며(고홍월 외, 2018),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춘다(길혜지, 최윤미, 2014)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전공일치 취업에 관한 논의는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직무역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잉 인적자원에 따른 비효율적인 인력활용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전공에 일치되는 취업을 통해 청년층의 기대수익에 부합하게 함으로써 조기 퇴직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이정우, 201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공과 직무의 일치 여부는 크게 객관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으로 측정되어 왔다. 먼저, 객관적인 방법은 직업사전 등 직업별 정보를 활용하여 전공일치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명료한 정의와 세부 측정 방법의 적용을 통해 비교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예컨대, Wolbers는 유럽연합의 2000년 LFS(The original labor force surveys) 자료를 활용하여 각 전공분야별 직업연계표를 토대로 13개국을 대상으로 전공 불일치를 측정한 바 있다. 반면, 주관적인 방법은 응답자의 판단에 따라 전공일치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김기현, 2006a).

2. 노동시장 성과로서 전공일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

그동안 노동시장의 성과는 취업, 임금, 고용형태, 직업지위, 사업체 규모, 직무만족, 전공과 직무일치 등을 통해 측정해 왔다(이만기, 2011; 길혜지, 최윤미, 2014; 심재휘, 김경근, 2015; 허균, 2016; Sewell & Hausser, 1975; Lin et al., 1981). 취업 여부는 일자리를 획득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임금은 개인이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주요한 소득으로서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표이며(권혜영, 2016), 높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고용형태는 크게 정

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데,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 복지, 근무환경, 승진기회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용형태 역시 노동시장의 성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권혜영, 2016).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성과로서 직무와 전공의 일치도는 업무의 수월성, 문제해결능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개인의 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으며(고홍일 외, 2018), 높은 직무만족도와 낮은 이직의도와의 관련성(길혜지, 최윤미, 2014)으로 인해 중요성을 갖는다.

이상의 노동시장 성과 중 전공일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공일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배경 요인으로 성별, 학력, 전공계열 등을 들 수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전공불일치가 낮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전공불일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실업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공분야가 아닌 직무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남성에 비해 경력이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전공불일치 상태를 개선할 여지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임찬영, 2008). 전공계열의 경우는 이만기(2011)의 연구에서 자연·공학계열은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전공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공 교과과정이 전공매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구성우와 김병주(2015)의 연구에서는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계열 전공계열이 인문계열보다 전공일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동안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통한 인적자본의 형성이 노동시장의 성과로 이어지는지는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왔다(김안국, 신동준, 2014). 장재윤 외(2007)의 연구에서는 대학의 전공에 몰입하여 공부할수록 전공 관련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김안국과 신동준(2014)의 연구에서는 전공 공부시간과 대학 학점은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직무와 전공이 일치하는 경우는 유의하게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우와 김병주(2015)의 연구에서는 학점이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하는 데 전공지식 중요도가 높을수록, 자격증과 전공의 연관성은 낮을수록 전공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선과 김한나(2019)의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와 진로상담이 전공일치 취업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전공만족도와 진로상담이 전공일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그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학 재학 중 일 경험 및 취업 준비 경험이 전공일치 취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탐색되어 왔지만 그 수는 제한적이다. 재학 중 일 경험 및 취업준비 경험은 주로 알바 경험, 현장실습, 인턴십, 자격증 취득 훈련 등과 같은 직업훈련 경험, 외국연수 경험 등이 포함된다. 대졸자의 재학 중 일 경험과 공식적인 구직경로는 전공 일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지선, 이수정, 신정철, 2010).

3. 노동시장 성과로서 전공일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요인

개인요인과 노동시장 성과와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 일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반면, 대학의 설립유형, 소재지, 학교유형, 대학서열 등과 같은 대학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와의 관련성은 혼재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길혜지, 최윤미, 2014, 심재휘, 김경근 2015; 허균, 2016).

설립유형을 보면, 국립대 졸업생들이 사립대 졸업생에 비해 노동시장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채창균, 김태기, 2009), 설립유형이 취업여부(길혜지, 최윤미, 2014), 정규직 취업 여부(길혜지, 최윤미, 2014; 심재휘, 김경근, 2015), 임금(심재휘, 김경근, 2015)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소재지의 경우 황여정, 백병부(2008)는 서울 소재 졸업생들은 타 지역 졸업생에 비해 취업 가능성, 대기업 취업 또는 정규직 취업 비율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허균(2016), 심재휘, 김경근(2015)의 연구에서는 소재지가 대졸자의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길혜지, 최윤미(2014)의 연구에서는 소재지는 취업여부나 정규직 취업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서열도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대학의 졸업자들이 중위권이나 하위권 대학의 졸업자보다 임금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이규용, 김용현, 2003), 명문대 졸업생은 비명문대 졸업생보다 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임천순, 양병무, 2006).

다른 노동시장 성과에 비해 전공일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특성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지는 않았다. 유현숙, 조영하(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배경 변인으로서 학교규모, 소재지,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국공립 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직무일치가 높고, 전문대학에 비해 일반대학의 직무일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우, 김병주(2015)의 연구에서는 설립유형, 학교유형, 소재지 변인은 전공일치 취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6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이하 2016GOMS) 자료 중에서 4년제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대학 재학 중 교육 및 취업 준비 경험이 졸업 후 전공일치 취업을 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GOMS에서는 매년 전년도 대졸자 1만 8천 명을 표본으로 이들의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개인신상정보 및 가계배경 등을 1회 조사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9). 예컨대, 2016GOMS는 2015년도 8월과 2016년도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6GOMS 자료 중에서도 4년제 대학과 비교 시, 수학 연한 및 대학에서의 교육 경험이 다소 상이할 것으로 예측되는 전문대학과 목적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대학 및 교육계열, 의학계열 대학생은 제외하고,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고민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4년제 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공일치 취업에 관심 있기에, 이들이 졸업한 후 현 시점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지 고려하여,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되, 현재하고 있는 일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응답 자료의 구조를 고려하여 개인수준과 학교수준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학별 응답자 수가 10명 미만인 대학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응답자 18,199명 중에서 해당 조건을 만족한 4년제 대졸자 7,876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최종적으로는 <표 1>과 같이 분석모형에 활용된 변수들에 성실히 응답한 7,738명과 이들이 졸업한 142개교를 분석하였다.

<표 1> 최종 분석 대상

		학생 (N=7,738)		대학 (N=142)			
		사례 수	%	설립 유형		사례 수	%
성별	남자	4,606	59.5	설립 유형	국공립/국립대법인	34	23.9
	여자	3,132	40.5		사립	108	76.1
전공 계열	인문사회	2,950	38.1	소재지	서울	111	78.2
	자연공학	3,984	51.5		서울 외	31	21.8
	예체능	804	10.4				

2. 분석 변수

가. 종속 변수: 전공일치 취업 여부

이 연구에서는 4년제 대졸자들이 취업 상황에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이 자신의 주 전공과 얼마나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자기보고식 5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을 토대로 '전공일치 취업 여부'를 정의하였다. 즉,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이 대학 주 전공과 '잘 맞는다' 혹은 '매우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전공에 일치된 취업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1로, 그 외 응답한 경우에는 0으로 더미 코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세부 전공과 직업, 직무 내용 등을 확인하여 전공일치 취업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자기보고에 기반 한 주관적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만, 차성현, 주휘정(2010)의 선행연구에서도 미스매치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유사 변수들을 주관적 지표로서 사용하였다(길혜지, 김영식, 2018)는 점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전공일치 취업을 주관적으로 정의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나아가, 최근 들어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융합적인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객관적 지표가 오히려 이러한 복잡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한편, <표 2>을 살펴보면 2015년도 8월과 2016년 2월 졸업한 대졸자 중에서 전공일치 취업을 하였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대졸자는 약 47.2%(3,652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서 보고하고 있는 전공일치 취업 비율과도 거의 유사한 것이다.

<표 2> 전공일치 취업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N=7,738)

구분	사례 수	%	구분	사례 수	%
전혀 맞지 않는다	1,152	14.9	전공 불일치 취업	4,086	52.8
잘 맞지 않는다	1,130	14.6			
보통이다	1,804	23.3			
잘 맞는다	2,475	32.0	전공 일치 취업	3,652	47.2
매우 잘 맞는다	1,177	15.2			

나. 전공일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학교수준 변수

노동시장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 개인과 대학수준 요인들을 살펴 본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의 전공일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생 수준 12개와 대학수준 5개로 설정하였다.

첫째, 대졸자의 '개인 배경' 관련 요인으로 성별(남학생), 가정의 경제수준, 전공계열, 입학 전형(정시입학 여부), 전공 선택 이유, 졸업평점을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성별은 '남학생'을 1, '여학생'을 0으로 더미 처리한 것이며, '가정의 경제수준'은 부모의 월평균 소득(0=없음, 1=100만 원 미만~8: 1000만 원 이상)과 자산규모(0=없음, 1=5천만 원 미만~6: 10억 이상)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각각을 Z점수로 변환한 후 평균하여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 졸업자를 0으로 하고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을 각각 1로 더미 처리하였고, '입학전형'도 고려하였는데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경우 1, 수시 또는 기타전형으로 입학한 경우 0으로 더미 처리하였다. 관련하여 '입학 당시 전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수능 및 학교성적에 맞춘 경우, 타인(부모, 선생님, 친구, 선배)의 권유, 사회적 인식이나 명성, 직업 및 취업전망 때문에 전공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극적인 선택으로 보고 0으로 처리하였고, '학문적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선택하였다고 보고 1로 더미 처리하여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졸업 평점'을 분석 변수로 설정하였는데, 각 대학별 평점 만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100점 만점 점수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둘째, 대졸자의 '대학 재학 중 취업 준비 경험' 관련 요인으로 취업목표의 구체성,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 횟수, 취업준비 활동 경험,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을 설정하였다. 먼저 '취업목표의 구체성'은 졸업 이전에 취업목표를 설정하였는지 그리고 설정하였다면 그 목표가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의미하며, 구체성의 정도는 직업에 관한 계획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였다.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 횟수'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진로 및 취업 관련 교과목,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직장체험프로그램, 교내 취업박람회, 진로,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면접기술서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취업캠프, 기업 채용설명회, 기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그 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 횟수로서 측정된 값을 활용하였다. 한편, 개인적으로 취업을 위해 기업체 직무적성검사 공부, 영어 등 외국어 공부, 봉사활동, 공모전 수상, 자격증 준비, 대외활동(체험단, 마케터, 서포터즈 등), 외모관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교육, 면접훈련 등 9개 항목을 경험한 정도 등을 경험 시 각 1점을 부여하여 총 9점 만점으로 '취업준비 활동 경험' 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재학 중 어떠한 일자리를 경험하였는지 또한 고려하였는데, 이 때 재학 중 일자리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를 0으로 하고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경험한 경우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를 경험한 경우를 각각 1로 더미 처리하였다.

셋째, 대학의 '배경' 관련 요인으로는 설립유형과 대학소재지 변수를 설정하였다. GOMS에서는 대학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변수들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먼저 설립유형이 '사립'이면 1로 그리고 '국·공립, 국립대법인'이면 0로 더미처리하였다. 또한

대학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면 1로, 그 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0으로 더미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교육특성 관련 요인으로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의 기여도, 교육환경 만족도, 대학교육 만족도를 설정하였는데, 이들 값은 모두 학생의 응답을 학교수준에서 평균 내어 활용한 것이다. 먼저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의 기여도'는 학생이 졸업한 대학에서 제공한 진로 및 취업 준비 관련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대학 수준에서 평균한 값이다. '교육환경 만족도'와 '대학교육 만족도' 역시 학생이 졸업한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한 9개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대학수준으로 평균한 값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환경 만족도는 대학의 교육시설, 학생복지, 학생지원제도(장학금, 해외연수 등), 진로관련 상담 및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을 측정된 4개 문항 평균값이다. 대학교육 만족도는 학생이 응답한 전공 커리큘럼 및 내용, 전공 교수진의 능력 및 열의, 수업의 방식 및 질, 전공에 대한 만족을 측정된 4개 문항 평균값이다. 이상의 분석변수에 대한 요약 설명 및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분석변수에 대한 설명 및 기술통계 결과(학생=7,738명, 학교=142개교)

변수 명	변수 설명	Min	Max	M	SD		
종속 변수	전공일치 취업	전공일치 취업=1, 전공불일치 취업=0		0	1	0.47	0.50
	남학생	남학생=1, 여학생=0		0	1	0.56	0.50
배 경	가정의 경제 수준	부母的 월평균 소득(1: 100만 원 미만~8: 1000만원 이상)과 부모의 자산규모(1: 5천만원 미만, 6: 10억 이상)를 Z점수로 변환한 값의 평균 값		-2.37	1.92	0.04	0.87
	전 공 계 열	자연 공학	자연공학계열=1, 인문사회계열=0	0	1	0.33	0.47
	예체능	예체능계열	예체능계열=1, 인문사회계열=0	0	1	0.13	0.34
	정시 입학	정시 전형	정시 전형=1, 그 외 전형=0	0	1	0.61	0.49
학 생 수 준	전공 선택: 흥미적성	입학 시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 선택=1, 소극적 선택=0		0	1	0.23	0.42
	졸업 평점	졸업 평점 변환점수(100점 만점)		44.19	100.00	80.76	8.83
	취업목표의 구체성	졸업이전 취업목표 미설정=0 졸업이전 취업목표 설정=1 졸업이전 취업목표 및 직업 계획=2		0	2	0.90	0.96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 횟수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 참여 횟수		0	204.00	4.70	7.56

변수 명		변수 설명	Min	Max	M	SD
취업준비	취업준비 활동 경험	기업체 직무적성검사 공부, 영어 등 외국어 공부, 봉사활동, 공모전 수상, 자격증 준비, 대외활동(체험단, 마케터, 서포터즈 등), 외모관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교육, 면접훈련 등 9개 항목을 경험한 정도(9점 만점)	0	9	3.03	2.22
	재학 중	전공 무관	0	1	0.47	0.50
	일 경험	전공 관련	0	1	0.19	0.39
배경	사립	사립대학=1, 국·공립·범인대학=0	0	1	0.76	0.43
	서울 소재	서울소재 대학=1, 그 외 지역 소재 대학=0	0	1	0.20	0.38
대학수준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의 기여도	학생이 응답한 대학의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직장체험 프로그램,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교내 취업박람회,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면접기술 프로그램, 취업캠프, 기업 채용설명회 등이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측정한 9개 문항 평균값을 학교수준에서 평균한 값	2.85	4.00	3.28	0.20
	교육 지원	교육 환경	2.63	4.16	3.28	0.27
	만족도	대학 교육	3.38	0.23	2.79	4.24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의 전공일치 취업 여부에 학생 개인과 대학 수준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기 위해 2016GOMS 자료를 활용한 일반화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HGLM)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취업 상태인 졸업생들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종속변수는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담당하는 일의 내용이 전공과 '잘 맞거나 매우 잘 맞는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전공일치 취업을 했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준거집단 삼아 분석하였다. 그리고 1수준에서는 학생 개인배경 및 재학 중 취업준비 관련 요인을 투입하였고, 2수준에서는 대학배경 요인과 교육특성 관련 요인을 투입하여 전공일치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학생과 대학 수준에서 나누어 순차적으로 투입하면서 확인하였다(<표 3> 참조). 최종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수준(대학생):

$$\ln\left(\frac{\Phi_{ij}}{1-\Phi_{ij}}\right) = \beta_{0j} + \beta_{1j}(\text{남학생})_{ij} + \beta_{2j}(\text{가정의 경제수준})_{ij} + \beta_{3j}(\text{자연공학})_{ij} \\ + \beta_{4j}(\text{예체능})_{ij} + \beta_{5j}(\text{정시입학})_{ij} + \beta_{6j}(\text{전공선택: 흥미적성})_{ij} \\ + \beta_{7j}(\text{졸업평점})_{ij} + \beta_{8j}(\text{취업목표의 구체성})_{ij} \\ + \beta_{9j}(\text{진로선택및취업준비프로그램참여횟수})_{ij} \\ + \beta_{10j}(\text{취업준비활동경험})_{ij} + \beta_{11j}(\text{전공무관일자리})_{ij} \\ + \beta_{12j}(\text{전공관련일자리})_{ij}$$

2수준(대학교):

$$\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사립대학}) + \gamma_{02}(\text{서울소재대학}) \\ + \gamma_{03}(\text{진로선택및취업준비프로그램의 기여도}) \\ + \gamma_{04}(\text{교육환경만족도}) + \gamma_{05}(\text{대학교육만족도}) + u_{0j}, \quad u_{0j} \sim N(0, \tau^2)$$

$$\beta_{1j} = \gamma_{10}$$

$$\beta_{2j} = \gamma_{20}$$

...

$$\beta_{6j} = \gamma_{60}$$

$$\beta_{7j} = \gamma_{70}$$

$$\beta_{8j} = \gamma_{80}$$

$$\beta_{9j} = \gamma_{90}$$

...

$$\beta_{12j} = \gamma_{120}$$

여기에서 Φ_{ij} 는 j대학교를 졸업한 i번 제 학생의 전공일치 취업을 할 확률을 의미한다. β_{0j} 는 j대학교에서의 전공일치 취업을 한 학생 비율의 로짓 값을 의미하고 γ_{00} 는 전체 대학생 중 전공일치 취업을 한 학생 비율의 로짓 값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수준에서 β_{1j} , β_{3j} , β_{4j} , β_{5j} , β_{6j} , β_{11j} , β_{12j} 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때 참조집단과 비교집단 간 전공

일치 취업을 한 학생 비율의 차이에 해당하고 그 외 계수는 각각 해당 변수가 높아질 때 전공일치 취업을 한 학생 비율의 증가(감)분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교수준에서 γ_{01} 과 γ_{02} 는 사립대학과 서울소재 대학이 그렇지 않은 대학과 비교 시 전공일치 취업을 한 학생의 비율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의미하며, 그 외 계수는 각각 해당 변수가 높아질 때 전공일치 취업 학생 비율이 얼마나 증가(감)하는 지를 보여준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설명변수의 기울기(β_{nj})에 대한 무선효과(τ_n)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를 찾기 어려웠으며, 본 연구에 있어 무선효과(τ_{00})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모형 분석 시에서는 모든 τ_n 을 0으로 고정한, 즉, 고정효과 모형으로 그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상의 모형에서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중 더미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전체평균(grand-mean)에 대해 센터링하였고, 결과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16GOMS에서 제공하는 횡단면 최중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생이 대학에서의 주 전공과 일치하는 취업을 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설명량을 학생수준과 대학수준에서 나누어 탐색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하나도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 모형(기초모형)에 학생수준 변수(모형1), 대학수준 변수(모형2)를 순차적으로 추가하면서 분석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정효과를 포함한 모형 간 비교를 위해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으로 추정하였는데, 변수를 순차적으로 투입할수록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값이 111199.73(기초모형), 10789.79(모형1), 10786.66(모형2)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과 학교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한 모형2를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다음 <표 4>는 기초모형, 모형1과 모형 2(최종모형)의 분석결과이다. 이 중에서 학생과 학교수준 변수를 모두 포함한 최종모형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학생 개인배경 변수 중에서는 전공계열(자연공학, 예체능), 전공 선택 시 흥미와 적성을 고려했는지 여부, 졸업 평점이 전공일치 취업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자연공학 계열 졸업생이 인문사회 계열 졸업생보다 전공일치 취업을 할 승산(odds)이 1.981배 더 높았고, 예체능 계열 졸업생 역시 그 승산이 1.736배 더 높았다. 대학 입학 시에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수능점수, 지인의 추천, 대학의 명성 등에 의해 전공을 선택한 학생보다 전공일치 취업을 할 승산이 1.284배 더 높았고, 졸업 평점이 높을수록 전공일치 취업을 할 승산 또한 높았다.

둘째, 학생이 재학 중에 경험한 취업 준비 관련 변수 중에서는 취업 목표가 구체적인 수록 전공일치 취업을 할 승산이 높았고, 재학 중에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경험한 학생이 일자리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학생보다 전공일치 취업을 할 승산이 1.194배 더 높았다. 반면, 취업준비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오히려 전공일치 취업을 할 승산이 낮았는데, 재학 중에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를 경험한 경우에는 일자리 자체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보다 오히려 전공일치 취업을 할 승산이 0.840배 더 낮았다.

한편, 이 연구에서 투입한 대학수준의 변수들은 모두 학생 개인의 전공일치 취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 배경이 사립대학이든 서울 소재 대학이든 그렇지 않은 대학(국·공립, 국립대법인, 서울 외 지역 소재대학)과 전공일치 취업을 할 승산에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대학 수준에서 제공한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취업에 기여하는 평균적인 수준이나 교육환경이나 대학교육에 대한 평균적인 만족도 역시 학생 개인이 전공일치 취업을 할 승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여 전공일치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전공일치 취업을 할 승산의 크기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전공계열(자연공학 계열), 전공계열(예체능), 전공선택 이유(흥미와 적성), 취업목표의 구체성, 재학 중 전공 관련 일 경험, 졸업평점의 순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표 4> 전공일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과 대학수준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기초 모형			조건 모형1 (학생수준)			조건 모형 2 (학생수준+대학수준)		
	β	SE	Odds ratio	β	SE	Odds ratio	β	SE	Odds ratio
절편	-.113 ***	.030	.893	-0.78 ***	.081	.456	-.831 ***	.100	.435
<학생 수준 : 개인 배경>									
성별(남학생)				.037	.057	1.035	.040	.058	1.041
가정의 경제 수준				.057	.030	1.059	.053	.030	1.054
전공 계열	자연공학			.679 ***	.057	1.973	.684 ***	.058	1.981
	예체능			.545 ***	.093	1.725	.552 ***	.093	1.736
정시 입학				.049	.054	1.049	.047	.055	1.048
전공 선택: 흥미적성				.256 ***	.054	1.292	.250 ***	.054	1.284
졸업 평점				.028 ***	.003	1.028	.028 ***	.003	1.028

	기초 모형			조건 모형1 (학생수준)			조건 모형 2 (학생수준+대학수준)		
	β	SE	Odds ratio	β	SE	Odds ratio	β	SE	Odds ratio
<학생 수준 : 취업 준비>									
취업목표의 구체성				.212 ***	.029	1.236	.211 ***	.029	1.235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 횟수				-.003	.004	.997	-.003	.004	.997
취업준비 활동 경험				-.042 ***	.013	.957	-.043 ***	.013	.957
재학 중 일 경험									
전공 무관				-.177 **	.060	.838	-.175 **	.060	.840
전공 관련				.186 *	.078	1.205	.177 *	.078	1.194
<대학 수준 : 배경>									
설립유형 (사립)							.034	.074	1.035
대학 소재지(서울)							.061	.072	1.063
<대학 수준 : 교육특성>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기여도							.055	.200	1.056
만족도									
교육 환경							-.030	.187	.0971
대학 교육							.114	.228	1.121
<무선효과>									
	분산	SD	분산	SD	분산	SD			
u_{0j}	.026**	.159	.017*	.131	.014*	.122			

*p<.05, **p<.01, ***p<.001

한편, 이 연구에서는 대졸자들의 입학 당시 전공선택 이유와 재학 중의 취업목표의 구체성이 전공일치 취업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 논의를 위해 전공과 불일치 한 취업을 한 대졸자와 전공과 일치한 취업을 한 대졸자 간 차이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전공일치 취업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N=7,738)

구분	전공불일치 취업 (n=4,086)		전공일치 취업 (n=3,652)		χ^2 (p-value)	
	사례 수	%	사례 수	%		
전공 선택 이유	소극 선택	직업 및 취업전망	888	21.7	877	124.854*** (0.000)
		수능 및 학교성적	1,015	24.8	562	
		부모, 교사 권유	310	7.6	252	
		친구, 선배 권유	33	0.8	22	
		사회적 인식, 명성	44	1.1	29	
적극 선택	학문적 흥미, 적성 고려	1,766	43.2	1,892	51.8	
		취업 목표	2,247	55.0	1,756	48.1
구체성	구체적 목표 설정	288	7.0	225	6.2	48.241*** (0.000)
		1551	38.0	1671	45.8	

*p<.05, **p<.01, ***p<.001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 재학 중의 교육 경험과 취업 준비 경험이 졸업 후의 전공일치 취업을 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함과 동시에,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가 질적으로 우수한 일자리라고 보고, 대졸자들이 보다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학생들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6GOMS 자료 중 4년제 대학 졸업생 7,738명의 응답과 이들이 졸업한 142개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화위계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성별이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 대입전형(정시전형 입학) 여부는 졸업 후 전공일치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입학 시 전공을 선택한 요인에 따른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입학 시 학교의 명성이나 타인의 추천 등을 고려하여 소극적으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학문적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전공일치 취업을 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입학 시의 학문적 흥미와 적성이 재학 가운데 학과 혹은 전공에 대한 실제적 만족으로 이어진다면 졸업 후 전공일치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시사한다. 특히 대학

입학 초기의 학과 만족도는 입학 10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과 전공의 일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홍일, 황재원, 이자명, 2018). 따라서 고등학교 시기에 대학이나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명성이나 사회적 평판, 타인의 권유 등을 고려하기보다 자신의 적성 및 흥미에 맞는 직업 또는 학과를 선택하도록 진로지도 및 상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예상한 바와 같이, 인문사회 계열 졸업생의 경우 자연공학이나 예체능 계열 졸업생에 비해 전공일치 취업을 할 승산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직업 선호 실태조사(주무현 외, 2008)에서 직업 선택시 인문, 사회, 예체능 전공 학생은 적성과 흥미를 가장 고려하는 반면, 공학, 자연과학, 의약학 전공 학생들은 전공 일치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고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인문사회 계열은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무 혹은 직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계열의 졸업생들에 비해 전공일치 취업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직업세계와의 연계성이 다른 계열에 비해 낮음으로써 취업시장에서 열세가 빈번히 보고되어 왔다(김기현, 2006b; 정지선 외, 2010; 주무현 외, 2008). 인문사회계열 분야의 전공일치 취업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노동시장에 대한 종합적, 정기적인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구직 정보는 생산/제조업, 마케팅 등 수요가 많은 분야의 기업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바, 전공과 연계된 다양한 직업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들 계열에서도 취업 성과를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분야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수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정지선 외, 2010). 또 한편으로는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공학 계열 간 융복합 전공이나 관련 트랙 개설 등을 통해,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리면서 새로운 분야의 직무에 적극성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대졸자들이 대학 재학 중의 취업 준비 관련 변수 중에서는 취업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전공일치 취업을 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대학 입학 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얼마나 고려하였는지와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적극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취업 목표를 학년 초부터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재학 과정 중에 이를 준비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이다. 또한, 졸업 평점이 전공일치 취업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는데, 대학과정 중 전공에 몰입할수록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다는 장재윤 외(2007)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결과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비록 입학 시 소극적으로 전공을 선택하였다 할지라도,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이 재학 중에 취업 목표 및 직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체계

적인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최근 대학들은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위해 학생들 스스로 입학 초기부터 졸업 때까지 단계적으로 대학생활 과정에서의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개발 및 관리하도록 돕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학생경력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대학생의 자기 주도적 경력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입학 초기부터 학생의 특성과 적성을 고려하여 취업 목표 및 직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취업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에서 시스템적으로 지원한다면, 전공일치 취업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학에서의 취업준비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오히려 전공일치 취업을 할 승산이 낮게 나타났다. 기업체 직무적성검사 공부, 영어 등 외국어 공부, 봉사활동, 공모전 수상, 자격증 준비, 대외활동, 외모관리, 이력서 등 작성 교육, 면접훈련 등을 위한 경험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취업 여부에는 유리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취업준비활동이 전공일치 취업의 가능성 자체를 높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청년층이 취업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는 있지만, 이는 구체적 목표 설정 없이 막연한 영어 공부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박성재, 반정호, 2006). 이공계열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직업선택시 전공 일치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주무현 외, 2008)로 볼 때, 이공계열 학생들은 전공일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취업준비경험을 많이 하기보다는 전공 학습에 충실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위에서 열거된 일반적인 취업준비활동 경험을 더 많이 하는 학생들은 애초에 전공일치 취업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계열의 학생들이 가능성이 높고, 이는 취업준비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전공일치 취업의 승산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재학 중에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를 경험한 경우에는 일자리 자체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보다 오히려 전공일치 취업을 할 승산이 0.840배 더 낮게 나타났다. 한편 재학 중에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경험한 학생이 일자리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학생보다 전공일치 취업을 할 승산이 1.194배 더 높았다. 이와 같이, 전공과 관련 없는 일자리를 경험한 경우에 일자리 자체에 대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전공일치 취업을 할 승산이 낮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전공 관련 경험 습득에 소극적이거나, 전공일치 취업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계열이기 때문에 재학 중에도 전공과 관련 없는 일자리를 경험하고 졸업 후에도 전공과 무관한 취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재학 중 알바의 경험이 학생들의 학업성과와의 부적 상관관계가 보고된 연구결과(이길재, 이정미, 2015)로 볼 때,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의 경험은 학생의 학업성적을 낮추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공일치 취업의 승산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전공일치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학 중에

전공 관련 일자리를 경험하거나, 또는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 경험 대신 전공 학습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대학수준의 변수들인 설립유형, 소재지, 대학에서 제공한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의 취업 기여 정도, 교육환경,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학생 개인의 전공일치 취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러한 대학특성 변수들은 대체로 임금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신혜숙 외(2014), 채창균, 김태기(2009), 심재휘, 김경근(2015) 등의 연구에서는 설립유형,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허균(2016)의 연구에서는 대학에 대한 만족도, 취업 교과목 참여도, 교내 취업박람회 참여도가 임금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수준의 특성 또는 노력이 노동시장 성과로서 임금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는 반면 전공일치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는 대학이 전공일치 취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전공에 특화되거나 밀착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권혜영. (2016). 대졸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과 노동시장 성과. **한국사회정책**, 23(1), 151-178.
- 길혜지, 김영식. (2018). 대졸 청년층의 직무불일치 잠재유형 변화 분석. **교육재정경제 연구**, 27(3), 155-178.
- 길혜지, 최윤미. (2014). 대졸자의 고용형태 결정요인 분석연구. **직업교육연구**, 33(6), 1-26.
- 김기현. (2006a). 업무내용과 대학(원) 전공의 불일치. 노동리뷰. 1월호 : 이슈분석. 한국 노동연구원.
- 김기현. (2006b). 과잉교육과 전공불일치: 노동시장 결과에 미치는 영향. **제7회 노동패 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김안국, 신동준 (2014). 전공공부와 영어공부의 노동시장 성과-대졸 여성 청년을 중심으로 -. **산업노동연구**, 20(2), 249-275.
- 김혜숙, 길혜지. (2017). 대졸자의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교육 특성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8(1), 145-167.
- 고홍월, 황재원, 이자명. (2018). 초기 대학생활 경험이 향후 전공일치도 및 직무·직장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5), 847-866.
- 문영만, 홍장표. (2017). 청년 취업자의 기업규모별 이직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산업노동연구**, 23(2), 195-230.
- 박성재, 반정호(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29(3), 29-50.
- 신혜숙, 민병철, 남수경. (2014).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취업성과에 대한 대학취업 지원기능확충사업의 효과분석. **아시아교육연구**, 6(50), 201-223.
- 심재휘, 김경근. (2015). 대졸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 영향요인 분석: 대학재학기간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1(1), 113-138.
- 유현숙, 조영하. (2005). 고등교육기관졸업자의 전공일치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연구. **한국교육**, 32(4), 223-244.
- 이규용, 김용현. (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3(2), 69-94.
- 이길재, 이정미. (2015). 대학의 학습성과와 만족도 영향요인. **교육행정학연구**, 33(1), 105-127.
- 이대웅, 손주희, 이소담, 권기현. (2015).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분석-위계선형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4(4), 125-154.
- 이만기. (2011). 대학졸업자의 취업준비전략과 노동시장에서의 질적 성과와의 관계 분

- 석·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4(2), 73-93.
- 이미선, 김한나. (2019).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상담이 전공일치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9(1), 33-53.
- 이병식, 최정윤. (2008). 다층모형을 활용한 대학생 핵심능력 개발의 영향요인 분석: 대학 교육과정과 대학특성 변인의 영향. **한국교육**, 35(2), 243-266.
- 이정우. (2019). 희망직업으로의 취업과 직무-전공 일치의 관계 분석: 대졸 청년층의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HRD 연구**, 21(1), 1-27.
- 임찬영. (2008). 전공불일치 결정요인과 전공불일치가 근속과 임금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8(1), 95-123.
- 임천순, 양병무. (2006). 대학졸업생의 직업세계로의 이행과 취업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4(3), 1-26.
- 장재윤, 신희천, 이지영. (2007). 대학에서 전공에 몰입하면 좋은 직장을 얻게되는가: 대학생들의 전공 몰입이 취업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0(4), 415-435.
- 정지선, 이수정, 신정철 (2010). 대졸청년층의 구직과정 및 취업의 질적 수준 분석: 전공계열별 차이를 중심으로. 2010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자 (pp.53-78). 한국고용정보원.
- 주무현 외(2008). **대학생 직업선호 실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 차성현, 주휘정. (2010). 교육 및 기술 불일치가 임금,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9(3), 177-215.
- 채창균, 김태기. (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8(2), 89-107.
- 통계청. (2018).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 허균. (2016). 대학 진로·취업 프로그램이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 연구. **직업교육연구**, 35(4), 47-61.
- 황여정, 백병부. (2008).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1(2), 1-23.
- 홍서연, 안주엽. (2002). 청년의 학교 졸업 후 구직기간의 분석. **노동정책연구**, 3(2), 19-46.
- Lin, N., Ensel, W. & Vaughn, J. (1981). Social resources and strength of ties: Structural factors in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4). 393-405.
- Sewell, W. & Hauser, R. (1975). *Education, occupation, and earnings: Achievement in the early career*. New York: Academic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college graduate's education and job preparation experiences on the major-job match

Lee, Jungmi(Assistant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il, Hyeji(Assistant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college education and career preparation experiences can lead to major-job match, and how colleges can design curriculum and support students to get better jobs. For this purpose, the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HGLM)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2016GOMS(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data.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1) Among the personal background factors, graduates of natural engineering and arts and physical education graduates had 1.981 times and 1.736 times higher odds for major-job match than those from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tudents who chose the major in consideration of their interests and aptitudes were 1.284 times higher odds for major-job match than those who chose the major for other reasons such as SAT scores, acquaintances' recommendation, and reputation of the college. The higher the graduation grade, the higher the odds for major-job match. 2) Among the factors related to job preparation, the more specific their employment goals, the higher the odds for major-job match, students who experienced jobs related to their majors had 1.194 times higher odds for major-job match than those who had no experience. And the more job-related efforts at the individual level, the lower the odds for major-job match, and Students who have job experiences that is not related to major had 0.840 times lower the odds for major-job match than those who did not have job experiences.

[Key words] college education, job preparation experiences, major-job match,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GOMS